

# 이번에는 꼭 인물보고 2번 노무현



- 1946년 경남 김해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김해 대창초등 졸업, 진영중 졸업,  
부산상고 졸업, 고졸학력이 전부입니다
- 1971년 육군 상병 만기 제대 (을지부대)
- 1975년 사법고시 합격, 그 뒤 판사 · 변호사
- 1987년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  
감옥에도 끌려가고 변호사 업무도 정지당함
- 1988년 5공 실세 허삼수를 누르고 13대 국회의원 당선, '청문회스타'
- 1990년 3당합당은 군사독재세력과의 약합, 변절, 국민에 대한  
배신이므로 뺏지에 연연하여 줄서기를 할 수 없다고 거부
- 1993년 당내 민주적 경선을 통해  
통합민주당 '최연소 최고위원'으로 선출됨
- 1998년 대한민국 정치1번지 종로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
- 1999년 키워 준 부산을 위해 일하고자 종로를 포기하고 돌아와  
'부산의 새로운 중심 북·강서을'에서 출마하기로 결심
- 2000년 당당히 경쟁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 · 협력하는 '정도(正道)'를 걷는  
새로운 지도력 창출을 위해 '민주당 당권 도전 선언'

깨끗한 선거를 위해  
자원봉사를 부탁드립니다

☎ 971-0001, 361-3055

소중한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ARS후원금 ☎ 02-7000-337 (1통화 1만원)  
홈페이지 [www.knowhow.or.kr](http://www.knowhow.or.kr)

이 인쇄물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것임 ▶제작자: 후보자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인쇄자: 인쇄콜 (부산 중구 동광동 47) 15-1, 전화/ 051-465-1225

# 부산에도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내리 두 번 떨어지고  
6년만에, 그것도 정치1번지 종로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종로사람들이 아니라 부산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종로 국회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부산에 국회의원은 많았지만 여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야당이 싹쓸이하면 부산 일은 누가 할 것인가' 걱정이 됐지만  
종로를 버리기는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산에도 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있어야 했습니다.

## 솔직히 야망도 있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사랑받는 정치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더 큰 일을 해 보고 싶다는 야망도 품고 왔습니다.

### 복·강서에는 '철새' 가 많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떨어지고 부산에 온 철새, 연제에 날아갔다 돌아온 철새,  
모두들 금뺏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종로의 뺏지를 과감하게 버리고  
일하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철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 공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신발산업육성 4,000억원 확보, 삼성차 재가동, 녹산공단 10% 할인분양,  
그린벨트 지침 변경, 지사과학단지 확정, 낙동강 수질개선계획 확정...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강동하수종말처리장 방류 위치 변경,  
대사초등학교 신축, 명지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버스노선(157-1) 연장,  
동원역 앞 육교설치 확정,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면제...,

## 공약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삼성차 르노인수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대통령을 설득하여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끝까지 매달리겠습니다.

강서 그린벨트,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발에 따른 철거와 이주가 많아집니다.  
앞으로는 이주대책없는 철거는 절대로 안됩니다. 세입자대책도 세워야합니다.

서낙동강 수질개선 · 농업환경정비 · 한정어업면허, 꼭 해야합니다.  
가덕대교 · 천가일주도로 하루빨리 완공되어야합니다.

금곡 · 화명 쓰레기소각장, 이미 끝난 거 같습니다만, 마음을 놓지는 않겠습니다.

금곡 · 화명 고등학교설립문제, 한 학교당 180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서민보호대책, 빨리 세우겠습니다.

조달청, 외곽으로 이전해야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모두 필요합니다.

## 인물은 좋은데 당이 좀...

“...노무현은...부산에서 국회의원과 시장후보로 출마해 내리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낙선 이유는 언제나 같았다. ‘인물은 좋은데 당이 좀...’ 능력은 흔쾌히 인정하지만 ‘김대중당’에 몸담고 있어서 찍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인물 좋은 신랑감이 한아름 꽃을 들고 구애를 하는데 시아버지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거듭 내쫓아 버린 신부감 가족의 마음이 편치 않은 셈이라고나 할까... ‘일편단심’ 다시 찾아온 이 미련한 사나이를 위해 부산시민들이 이번에는 과연 문을 열어줄 것인가?...”

- 시사평론가 유시민의 세상읽기 中에서 (동아일보 2000. 3. 15)

## 지역대결의 시대는 곧 끝납니다

2년 뒤 대구후보도, 부산후보도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근태 · 노무현 · 이인제 세 사람중 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내 뿐만 아니라 노무현이 제일 깊습니다.

**이번에 당선만 되면, 자신 있습니다**

**“노무현이 민주당의 차기 대권후보가 되어도  
민주당을 ‘호남당’이라고 미워하시겠습니까?”**



1석 3조(一石三鳥)

“노무현의원이 당선되면, 첫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고, 둘째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총재 후보를 뽑는 것이고, 셋째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를 뽑는 것입니다.”

(3월 18일 노무현후원회장에서 김민석의원이 한 말中)

## 노무현은 미래가 있습니다

한겨레  
21



■ 전국적으로 3김씨와 박태준씨를 제외한 정치인 중 선호하는 정치인을 물는  
질의 항목에서



-부산일보 '99. 9월 조사

노무현 43.2%

이회창 36.0%  
이인제 35.1%

-한겨레21 '99. 7. 1

■ 부산 · 경남을 대표하는 정치인



-문화일보 '99. 3. 25

■ 21세기를 이끌어 갈 가장 역량있는 정치인



-내일신문 '99. 7. 27~8. 5 미디어리서치 국민여론조사

**그러나, 아직 모자람이 많습니다  
열심히 갈고 닦겠습니다**

## 서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김해 진영의 작은 시골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학교는 고등학교밖에 못나왔습니다. 최전방 철책선에서 쫄병으로 근무했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말하다가 짓밟힌 노동자들과 함께 권력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돈은 별로 못 벌었지만, '인권변호사, 서민의 대변자' 소리를 들었습니다.

98년 종로에서 당선된 지 10일만에 울산 현대자동차 파업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끈질기게 버틴 끝에 노동자들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 소신있는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88년 국회 5공비리 청문회, 돈은 궁했지만 증인으로 나온 정주영씨에게 "회장님" 하자는 않았습니다. 돈앞에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90년 3당합당, 따라가면 권세좋은 여당이 되고 다음 선거에 쉽게 당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정종식을 약속하고 당선된 정치인이 유권자들을 배신하고 뺏지에 연연하여 변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 부산을 사랑하고 책임질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95년 경기도지사후보 여론조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다들 나가라고 했습니다. 조순씨는 서울부시장을 제의했습니다. 서울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은 모두들 떨어질 거라고 말하는 부산시장에 출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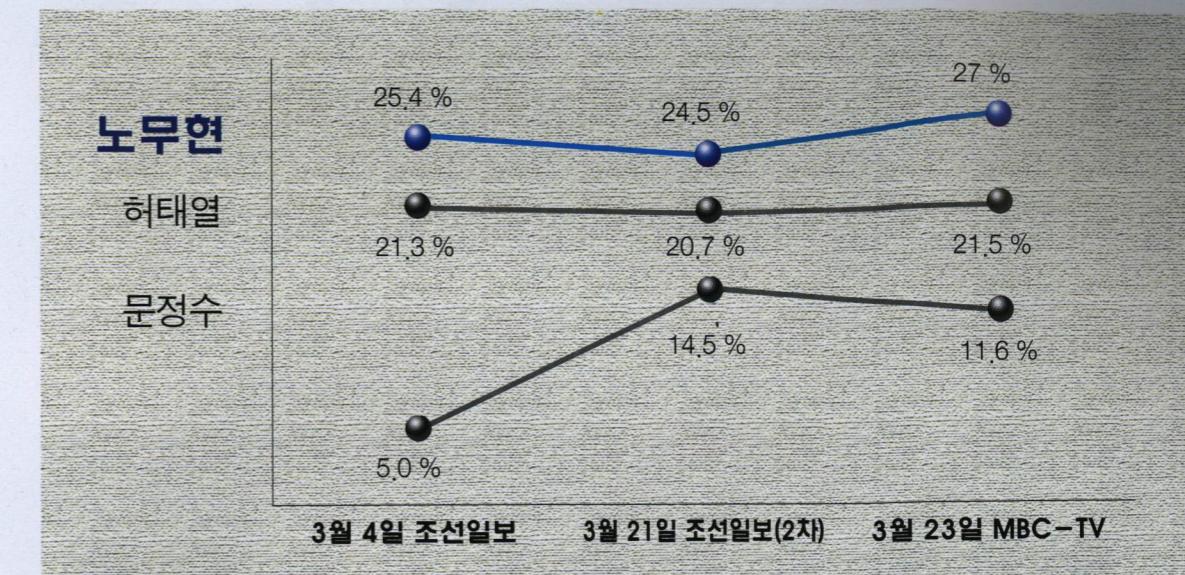
이번에도 또 내려왔습니다.

### ■ 경기도지사후보 여론조사

노무현 19.4 %

이인제 5.1 %

## 모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됩니다



※ 추세비교를 위해 '갤럽' 조사결과만 인용했습니다.

### 그밖에

|                                |               |                    |             |
|--------------------------------|---------------|--------------------|-------------|
| 3월 2일 국제신문                     | 3월 11일 국민일보   | 3월 13일 부산일보        | 3월 13일 중앙일보 |
| 3월 19일 KBS-TV                  | 3월 20일 SBS-TV | 3월 21일 동아일보        | 3월 23일 국제신문 |
| 3월 23일 KBS-TV(2차)              | 3월 24일 부산일보   | 3월 27일 한국일보 등에 보도된 |             |
|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노무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               |                    |             |

## 그러나, 솔직히 걱정입니다 꼭 투표해주십시오

'6월 시민항쟁'으로 세상을 바꿨듯이, 이번에는 정치를 바꿔주십시오.  
88년 13대 총선, 서민의 힘으로 당선됐습니다.  
이번에도 도와주십시오. 꼭 보답하겠습니다.